



재난안전 지진대피 행동요령 안내

군산중앙소
가정통신

(54028) 군산시 중앙로 91/ 담당교사 박지은 ☎ 443 - 1735(교무실), 1736(행정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얼마 전 포항 지진으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진 관련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 자료 제공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드리니 자녀들과 다시 한 번 대피요령을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진이 났을 경우 이재민을 대상으로 집단 구호를 위해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본 교 주변 실내 구호소는 **군산공설시장**입니다.

※ 만약의 자연재해 시 자녀들과 연락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약속하면 도움이 됩니다.

①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 우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꼭 잡고 몸을 피합니다.
-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가구 등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
- 큰 진동이 멈춘 후 여진발생 등을 대비하여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진동 중에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지므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진동이 완전히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비상시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시다.
-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의 경우 문이 비뚤어져 갇힌 사례가 있음.

②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땅이 크게 흔들려 서 있기 어려우면 무엇이든 잡거나 기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대문기둥이나 담 등을 잡게 되는데, 이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 과거 대지진시 블록담이나 대문기둥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공터나 공원, 학교 운동장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가방이나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또한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것들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합니다.
-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빌딩가에 있을 때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상황에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 번화가나 빌딩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

※ 자녀와 함께 묻고 답하는 활동을 통해 지진대피 관련 행동요령에 대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
(2) 지진에 의한 대부분의 부상은 떨어지는 물건으로 인한 부상이다.	○
(3) 지진 초기에 가스불을 끄지 못했다면 큰 흔들림이 멈춘 후 가스 불을 꺼야한다.	○
(4) 해안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언덕이나 높은 건물로 이동한다.	○
(5) 지진이 발생하면 무조건 집 밖으로 뛰쳐나간다.	×
(6) 실내에 있을 때는 가스, 전원, 수도를 차단한다.	○
(7)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정이나 주변에 대피할만한 장소를 살펴본다.	○
(8) 차 안에 있을 때는 차 밖으로 신속하게 나온다.	×
(9) 등산을 할 때에는 산사태를 피해서 급경사가 없는 곳으로 이동한다.	○
(10) 지진 발생 시 전화통화가 안 될 수 있으므로 가족들과 헤어졌을 때 만날 약속 장소를 미리 정해 둔다.	○
(11)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나무나 전신주를 꼭 잡고 지진이 멈출 때 까지 기다린다.	×

지진대피 국민 행동요령

1. 집안에 있을 경우 		
우선 테이블 밑으로 몸을 보호	사용 중인 불, 수도, 전원 끄기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 !
2. 집밖에 있을 경우 	3. 상가에 있을 경우 	4.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낙하물 주의! 머리보호!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기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려 대피
5. 전철을 타고 있는 경우 	6.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7.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손잡이, 기둥, 고정물 꼭 잡기	도로 우측에 정차, 중앙 비우기	산사태 등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
8. 부상자가 있는 경우 	9. 피난은 마지막 수단 	10.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 
서로 협력해서 응급구호 하기	대피는 도보로 짐은 최소로	유언비어 믿지 말기

2017. 11. 21.

군 산 중 앙 초 등 학 교 장